

2022

설날 가정예배

찬송가 384 /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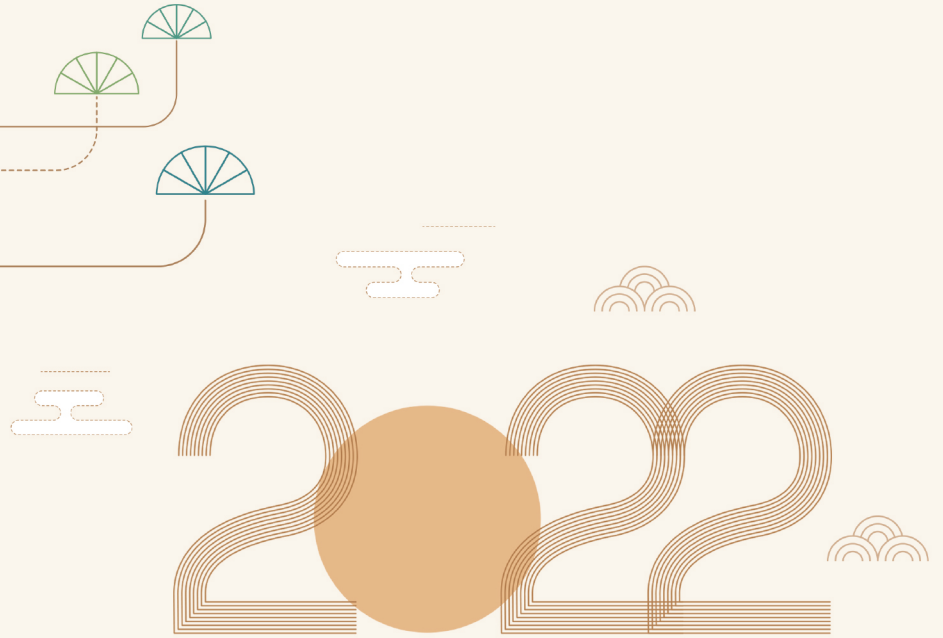
- 1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흠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 2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 3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310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 지 난 알 수 없도다
-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 4 주 언제 강림하실 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HAPPY NEW YEAR



설날 가정예배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말 은 이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2022년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384장 다 같 이

성경봉독 시편 127편 1절 다 같 이

말 씬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하나님의 세우시는 은혜로 우리 모든 가족들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2022년도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2년도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앞서 갈 때 멈춰서서 주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우리가 게을러 삶을 방관하고 있을 때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 온 열방이 하나님의 세우시는 역사를 목도하며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 송 찬송가 310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2022년도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농부는 큰 수확을 위해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성껏 돌봅니다.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애를 쓰고 돌봐도 적당한 기후와 날씨까지 농부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도 내 맘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도, 사업과 진로의 문제도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손으로 움직여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작년도 그렇지만, 올 한해도 하나님이 개인의 문제,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과 사업, 진로와 경제적인 문제 속에 관여해주셔야만 우리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내 집 지키고, 심지어 성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다스려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 온 열방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